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확대회의 지도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기본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혁명의 전위대로,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위원회 제7기 제1차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

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적당군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대책들이 토의 결정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확대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후 인민군대의 군사정치과업수행정형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였

으며 혁명투력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군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 당이 밝혀준 훈련혁명방침, 사상혁명방침, 군대현대화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군인생활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다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하고 앞으로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영원히 고수하고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남조선 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고 언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은 남조선당국이 예정되어있던 북남고위급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해보려고 첩면피한 추태를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최근 남조선당국이 한편으로는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주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전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센터》연합공공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쓰레기들을 《국회》마당에 내세워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빼앗아 버려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남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

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16일 남측당국에도 통고하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로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이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대책을 세출대신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축수》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이하로 높아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남조선당국의 이 모든 대결소동들은 지난 시기 적대와 분렬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땅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도, 마주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도, 흐르는 대세에 대한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 다름아닌 현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판단하게 되었다.

신의신뢰가 결여되고 무례무도한 사람들과 마주앉아서는 그 언제 가도 나라와 민족의 진도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써나갈수 없다는것은 지난 력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이다.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첩면피한 추태로 일관된 변명과 구실을 늘어놓으며 터무니없는 책임전가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허송할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만회할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져지는데 대해 머리를 싸쥐고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미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려는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방물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두차례나 접견해주시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력사적부리가 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의 정세완화를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걸음으로 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있는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조선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세우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하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제로 내맡기고 봉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개선을 바라고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걷는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있다.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

와 대비하는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불튼이 어떤자인가를 명백히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트럼프행정부의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불튼과 같은자들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핵포기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수차례 걸쳐 천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만하면서 저들의 제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전 행정부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트럼프행정부의 우리의 핵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을 때 이전 행정부들이 세웠던 핵개발은 대조선정책안을 그대로 만지작거리고있다는것은 유치한 회국이 아닐수 없다.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행정부들이 이루지 못한 최상의 성과를 내려던 조선과는 정반대로 력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할 호응을 받게 될것이지만 우리는 구석으로 물고갈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다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것이다.

◎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키움합창 (20) ◎

인민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

지금으로부터 55년전 미국에서 진행된 《위성투행진》에서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을 말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하여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수난자들의 목소리는 세월의 언덕에서 끝없이 울려퍼졌지만 여전히 실현될 수 없는 메아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세계의 비참한 현실이다. 하기에 아직도 세계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라는 구호아래 시위행진을 계속 벌이고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인류역사는 인민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백성의 마음은 삼척동자

와 같다고 순박하게 그치지 않는 인민의 꿈은 언제나 소박하였다. 대지를 피눈물로 적시며 고역살이에 등뼈가 휘도록 가래기를 갈면서 농민들이 꿈을 꾸는 자의 땅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었고 천대와 멸시속에 열두꼭지마자락을 눈물로 적시며 조선농민들이 대대로 소원한 것은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늘에 빌어도 보았고 신의 《축복》을 부르며 인생길에 행운이 트이기를 바라기도 했으며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는 권력자들에게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세상은 없었으니 그래서 백성의 꿈은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환상의 세계로 되어왔다. 인민의 이 모든 꿈은 만백성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공화국에서 꽃피날 수 있었다.

토지개혁법이 발표되고 공장

몰락보좌면모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공화국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총부지먼적만 해도 수십만㎡에 달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명사실리해변가를 따라 휴양구역-1과 휴양구역-2로 나뉘어 건설된다. 여기에는 호텔과 자취속소, 민박숙소 등 각종 봉사건축물을 비롯한 수백동의 건축물들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면서도 대량별특성과 수용능력에 맞게 일떠서고 있다.

주목을 끄는 건설대상들중에는 민족문화체험수도 있다.

대담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나갈 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교육위원회 일꾼들은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조국의 미래를 담보해갈 인재육성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갈 결의에 넘쳐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교육위원회 일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는데 교육위원회 일꾼들의 심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리관호부위원장: 정말 흥분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전환을 제시하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중계가 중요하게 토의된것은 우리 당이 과학교육을 열매로 증시하고 내세우고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경에 하는 최고 정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시는 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가시는 만민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방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지적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기자: 과학교육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김원희부부장: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지는 법이다. 우리는 교원진영을 적격자들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상업봉사부문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평양시립대학교는 지난 시기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크지 않은 교육단위이다. 하지만 요즘 평양시립대학교의 면모가 달라 보게 달라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얼마전 취재차로 이곳 학교를 찾은 우리의 눈앞에 밝은 색의 타일을 붙인 학교건물이 거리의 풍경과 어울려 환하게 안겨왔다. 아늑한 교정이며 멋들어지게 꾸러진 휴식터, 화창한 봄

기적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을 사회주의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 데 대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각자의 교육기관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 정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이 이 사업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다.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유익한, 소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장인 평양교원대학에서는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에 기초한 교육방법을 새롭게 혁신해나가고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곳 대학에서 새롭고 특색있는 교육방법인 가상교수체험체제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들, 관리운영설비들이 그르치, 관주어졌는 것이었다. 우리가 어느 한 교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한창 다매체 편집물에 의한 강의를 받고있었다. 학생들이 다매체편집물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천능력을 높여가니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우리는 전자도서관에도 둘러보았다. 수십대의 컴퓨터들이 갖추어져있는 이곳은 하루 강의가 끝나면 교원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되고있었다. 이곳에서 국가망을 통하여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제때에 습득하고 강의와 실습에 적극 구현해나가고있었다.

학교에서는 쓸모있는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자면 교수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었다. 이들은 교내교부망을 구축

이 나날 자체의 힘으로 2층짜리교사를 새로 일떠세우고 종합강의실과 회의실, 다기능화원 교실들과 실습실들, 문화후생시설들을 그르치 갖추어 놓았다.

태양전지판을 리용한 가로등이 생겨나 교정의 밤경정도 이채로와졌다. 참으로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교정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가져다준 기쁨과 사기 가득 차넘치는 학교, 돌아볼수록 정이 들어 떠나고싶지 않은 교정이였다.

헤어지기에 앞서 김창민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는 것은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구호를 받들고 학교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교수필도가 보 다 높아지고 교수의 전 과정이 교육현실과 밀착되었으며 기초과목, 립과목과의 호응성 관속에 교재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실리적이고 우월한 새 교수방법들은 지금 대학의 교입되자마자 그 효과가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결과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교수필도가 보 다 높아지고 교수의 전 과정이 교육현실과 밀착되었으며 기초과목, 립과목과의 호응성 관속에 교재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실리적이고 우월한 새 교수방법들은 지금 대학의 교입되자마자 그 효과가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은을 내는 특색있는 가상교수체험체제

수업방법인 가상교수체험체제를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다. 가상교수체험체제는 소학교 학생들의 심리를 체험하고 이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황처리기술을 터득하여 그에 맞는 여러가지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는 새롭고 특색있는 소학교교수방법이다.

흔히 소학교학생들은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장님이 심하며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보다도 자기의 심리에 빠져있는 것으로 하여 교원들의 교수에서는 많은 예로가 제기되곤 하였다. 지난 시기 이곳 대학에서는 틀에 박힌 몇개의 가상정황을 정제하고 대학생들이 서로 옛 바꾸어보면서 《교원》과 《소학교학생》이 되어 고정적식원대학에서는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에 기초한 교육방법을 새롭게 혁신해나가고있다.

경이나 조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목적과 의도에 맞게 리용할 수 있게 하는 가상교수체험체제를 도입하여 대학생들이 실제 교단에서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하는 것과 같은 생동한 체험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정황처리능력을 키워주게 하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등극한 가상교수체험체제는 여러 교원대학들에 널리 보급되고있다.

이와 함께 평양교원대학에서는 생방향통신수단을 리용한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창안하고 교육실현에 구현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부족소학교과의 원격생방향교육방법, 소학교, 유치원의 각이한 환경에서 교원물리용방법, 소학교교육에서 교수와 교양의 결합방법,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결합방법 등 다



